"마음속 법당 땅에 세워요"

산문밖의 수禪

대목 장 효 순 씨

월악산 덕주계곡
아름다운 풍경 속 산뜻한
새 법당 한 채 솟으면
꿈틀대는 용마루 끝
뎅그렁뎅그렁 풍경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여래의 소식.

대목 장효순(57, 張孝淳)씨는 요즘 월악산 덕주사의 새 법당 짓기에 바쁘다. 법당을 짓는 동안은 장씨 자신이 하나의 법당이기도 하다. 법당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의 마음 속에는 산뜻한 새 법당 하나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삶과 일의 스승은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법당 짓기는 마음 속의 법당을 산속에다 옮겨 놓는 작업인 셈이다. 35년의 목수 생활에서 그가 터득한 대목의 바른 길이 바로 이 '마음 속 법당을 땅으로 옮기는 것'이다.

"설계도가 나오고 목재를 구입하고 자질을 하고 다듬고 깎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법당을 지으며 대목만이 느끼는 기쁨을 마음속에 갈무리해 왔다. 그만큼 그는 늘 보다 완벽한 집짓기에 도전하는 정열을 잃지않고 있다.

그는 섣불리 기계작업을 하지 않는 토종 목수이기도 하다. 기계작업이 일은 빠르고 쉬울지 몰라도 항상 개운한 맛이 없어 싫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작업을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손작업을 해야 반듯한 집이 지어진다는 경험도 그를 토종 목수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다.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웠어요. 먹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대패질을 해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먹줄을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그만큼 일에 혼을 새겨 넣으라는 뜻이거든요. 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 속의 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장효순씨의 스승이자 부친인 장석재(84)옹은 생존해 있는 우리나라 대목 중 으뜸가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 큰 스승 아래서 일을 배운 장씨인만큼 솜씨나 정신에 흐트러짐이 없다.

장씨가 아버지에게 배우고 또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집짓기 솜씨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다. 한마디로 혼이 들어 있는 솜씨다.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제대로 된 집'이나 '마음 속의 그것과 똑같은 집'은 모두 혼이 들어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집이 지어졌을 때 배로소 추녀밑 풍경소리가 여래의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신념을 그는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우선 일을 맡으면 집이 들어 설 곳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집채를 마음 속에 그려 넣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지 않아요. 경험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지요."

마음 속에 집이 그려지면 그것을 토대로 기둥을 깎고 서까래를 깎는다. 대들보를 깎고 가장 정교한 솜씨가 필요한 포를 깎는 동안도 끝없이 마음 속에 지어진 집과 대조를 해야 한다. 정확한 자질과 오차없이 밀어내는 대패질과 끌질을 하는 동안 그는 또 하나의 집이 익어가는 것을 느끼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깎고 다듬고 혼 불어넣고' 반듯한 집짓기 35년
서까래 하나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집'을 생각

모두 내 마음 속에 세워진 법당을 땅으로 옮겨다 놓는 과정입니다. 모든 집짓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 법당을 지을 때는 마음 속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 땅위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지요. 부처님 모시는 집은 특별한 집이니까요."

법당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미 장씨의 법당짓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치의 오차가 있어도 언젠가는 어긋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모시는 집 만큼은 천년 만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씨는 "마음 속에 그린 멋드러진 법당과 똑같은 법당 한 채를 땅위에 탄생시키는 순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다"고 말한다.

스무살을 전후해 연장을 만지기 시작한 장씨는 지난 35년의 세월을 손끝의 연장과 마음 속의 집(법당)을 짜맞추며 살아왔다. 사자산 법흥사, 오봉산 석굴암, 인천 보각사, 굉탱 만기사, 인천 보각선원, 구의동 화양사, 대성암…. 그는

무너지는 장삿속 건물들

"일단 상량식까지가 끝나면 어느 정도 작품의 완성도가 점검됩니다. 준비된 부재들을 짜맞추며 한 채의 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 그것은 목수들만이 갖는 절대적인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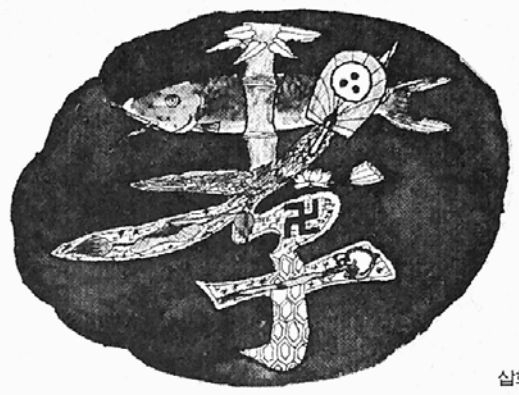
아직 후회스런 집은 지어 본 적이 없다는 장씨는 최근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혼이 빠진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정작 슬퍼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집을 장사속으로만 짓는 오늘날의 세태인 것이다.

"하나의 서까래를 깎으면서도 집 전체를 생각하는 대목들의 마음 씀씀와 콘크리트를 쏟아 부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요즘의 건축업자들이 갖는 집짓기에 대한 마음의 차이가 무너지는 집과 천년 만년 지탱해 가는 집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인 자신에게조차 손을 못대게 하는 아버지의 연장들을 보며 장씨는 진정한 장인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연장 중에서도 특히 자를 숭상하기까지 하는 목수들의 마음을 현대 건축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장효순씨.

집이 무너지는 세상에 천년 만년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속의 집을 짓는 장씨는 "집짓는 일만한 마음 공부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것은 잡념을 빼어버리고 오로지 멋있고 단단한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 붓는 대목만의 자부심일 것이다.

임연태 기자



삽화 · 이기선

효는 모든 선행의 으뜸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㉞

효도(孝道)

깨우쳐 중생제도 하면 '보살효'

살벌한 말들이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등장하여 가슴을 오싹하게 한다. 남편죽이기, 선생죽이기, 아내죽이기, 부처죽이기등 이처럼 죽이기 연계언어는 우리 사회의 공해가 아닐 수 없다. 살리기도 모자라는 판에 죽이기의 연속회화가 대화속에 마구 쏟아지고 있으니 이 무슨 변고인가.

우리의 역사 고전서인 삼국유사에는 효선(孝善)에 관한 것이 밀편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일연스님은 역사를 추심하면서 한국불교의 신앙, 교학, 문화, 예술의 일인자 아니면 그에 참여하였던 일화를 소상히 적기하여 그 시대의 인물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연스님이 삼국유사 제일 끝편에 효선에 관한 기록을 남긴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고 생각된다. 진정스님의 효선 김대성이 이세부모께 효도한 것, 향득사저가 다리살을 공양한 것, 손순이 아이를 땅에 묻는 것, 가난한 여인의 효성 등의 다섯가지 이야기가 잔잔하게 실려 있는데 가슴을 에이게 한다.

진정법사 출가의 깊은 뜻

흔히들 불교는 출가하므로 불효가 막심한 종교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집을 떠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집에 머물면서 양친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법사의 경우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 한쪽만으로 효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 불교가 의미하는 효관이 있는 것이다.

진정법사는 속인으로 집에 있을 때, 하도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한 떠꺼머리 총각이었다. 군대에 복역하는 기간 이외에는 품을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재산인 다리부러진 솥 하나마저 보시했다. 신심이 깊은 불자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은근히 걱정되었다. 아들 진정이 어떻게 나올까 하여. 그러나 딴판이었다. 진정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 효도를 다 마친 후에는 의상법사 아래에 출가하여 불도를 배우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어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하루빨리 출가하기로 강권하였다.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집에 있는 쌀을 다 털어 밥을 짓고, 싸주면서 가는 도중에 먹도록 하였다.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닐진데 어머니의 미음꺼리마저 가지고 가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천지가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한사코 출가하기를 바라니 어쩔 수 없이 진정은 출가하여 의상법사 밑에서 3년가량 열심히 공부하였다. 어느날 선정에 깊이 든지 7일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되어, 의상스님께 아뢰니 의상스님은 문도를 거느리고 소백산의 추동에 초가를 짓고 제자 3천명과 함께 90일 동안 화엄법회를 마련하였다.

진정의 어머니가 일찍이 부러진 솥까지 불전에 공양하였다는 사실은 물질에 애착을 두지 않는 보살심의 발로였다. 또한 그녀는 아들을 바른 길에 들게하는 큰 원력도 함께 가진 신라의 어머니였다.

살인만연 사회 효로 극복

불교에는 효가 있다, 없다고 시비를 하지만 진정의 이야기는 불교의 효를 소극적인 자아중심의 효가 아니라 대국적인 효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단순한 말씀속에는 출가가 불효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하여 불도를 깨쳐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처럼 위대한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대승적 보살효가 숨어 있는 것이다. 진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위대한 화엄교승의상 스스로 소백산 추동에서 90일 동안 화엄법회를 서설한 것은 진정의 효성과 화엄법회를 하나로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는 효가 있다. 이 효는 선행과 보살행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선행의 극치는 효에서 오고, 효를 이행하는 사람은 바로 선행의 궁극에 도달한 사람인 것이다.

오늘날처럼 죽이기라는 말로서 희론을 일삼는 사람들도 효사상의 극치를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옛날 일연스님도 효성이 지극한 수행자임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삼국유사에 효선편을 기록한 고승의 덕성을 자신속에 옮겨오면 죽이기보다 살리기 하는 불자가 늘어가리라 본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 강 • 안 • 내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1. 전문반 (강원코스)
- ㅇ사미과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ㅇ사집과 = 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ㅇ사교과 =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ㅇ의전과 = 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 (교양코스)
- ㅇ교리강좌 = 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ㅇ경전강독 = 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ㅇ교양의식 = 삼화행도집
- ㅇ교양불교사 = 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 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 수업료 = 2만 5천원
③ 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 바람.

■ 문의처 : ☎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 月 雲

공 고

제9기 행자 교육원을 다음과 같이 개원함을 공고합니다

1. 명 칭 : 제9기 행자 교육원
2. 교육기간 : 불기 2539년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3. 장 소 : 제12교구본사 가야산 해인사
4. 교육대상 : 불기 2539년 3월 14일 이전, 사찰에 입산하여 소정의 행자 교육 수련 과정에 있는 남녀 행자로서,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필한 자
   1) 승니법 제 7조의 유자격자
   2) 동법 제 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준 비 물
   가. 구비서류 : 입방지원서, 신상명세서, 거주사 주지스님 추천서(이상 소정양식),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4매(2×3cm, 행자복 착용), 교육비 20만원(소속교구본사에서 수령하여 교육원에 납부, 개인 납부 불가)
   나. 지 참 물 : 장삼, 발우, 세면도구, 주민등록증, 삭발용 면도기, 침구(모포 1개)
   다. 복 장 : 행자복(남:회색, 여:주황색), 흰 고무신 착용
   라. 교육장 도착 : 교육 행자는 8월 14일 오후 2시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야 함.
6. 신청기간 : 불기 2539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본 기간 외에는 일체 접수 받지 않음)
7. 접 수 처 : 각 교구본사. 단, 직할교구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교육원
   문의전화 : 732-4923 ~ 4 / 팩스 : 732-4926

불기 2539년 6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김 원 산
제9기 행자 교육원장 이 지 관